

‘부처’ 통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

‘니르바나 생과 사의 경계’展 모란미술관(8월 28일 까지)

중견 불교미술인들이 한데 모여 불교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8월 28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모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니르바나 생과 사의 경계’展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이번 특별전은 모란미술관내 사찰인 백련사 개원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주목된다. 참여 작가로는 강용면 고명근 김세일 김중구



강용면씨의 '부처'.

이외에도 캔버스에 유화를 그린 이흥덕씨의 '붓다', 예수 서울에 입성하'와 정광호씨의 '더포트 42120', 최태훈씨의 '숲-부처' 등도 불교의 상징을 통해 인간의 이기와 탐욕의 끝을 표현하고 있다.

김세일 화예실장은 "불교미술하면 으레 사찰이나 박물관 안의 봉헌물로서 불화나 불상, 공예 등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불교 미술의 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갈망하는 불교의 특성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기획 전시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031)594-8001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news.com

백련사 개원 기념 중견 불교미술 12인 한자리
브론즈·테라코타·수묵채화 등 표현 다양
현대적 기법에 부처의 정신세계까지 담아내



고명근씨의 '2면 관음'.

노주환 안성금 이호신 이흥덕 정광호 천성명 최태훈 홍성담 등 12명이다. 작품 장르도 브론즈, 테라코타, 수묵채화, 유화 등 다양한 층분한 불가리를 제공한다.

모자이크 작품인 '부처'를 내놓은 강용면씨는 아름다운 한국의 오색 단청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우선 가부좌를 튼 부처의 모습을 동(銅)으로 뼈대만 세웠다. 그안에 형형색색의 단청색을 조화롭게 활용해 속살(?)을 모자이크로 채워 넣었다. 얼핏보면 투명인간을 연상케 하지만 분명 무변광대한 부처님의 모습이다.

김세일 씨의 '미륵'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국보 제 83호 미륵반가상을 보는 듯 하다. 얼굴은 풍만하며, 가는 눈에 눈썹은 아름다운 반원을 그리고, 눈과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었다. 왼발은 내려 작은 연좌(蓮座)를 밟고 오른발을 그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왼손은 그 발목을 잡았으며, 오른손은 팔꿈치를 무릎에 얹어 손가락으로 턱을 짚고 모습이 국보 미륵반가상과 흡사 쌍둥이 불상 같다.

또 이호신씨의 '생사(生死)의 우(雨)'는 열색한지에 수묵 채색을 한 것으로 열반에 든 한 선사와 무심하게 그를 따라가는 사부대중들의 행렬을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브론즈(동)를 사용한 부처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고명근 씨의 '2면 관음'도 눈여겨 볼만하다. 큰 부처의 얼굴 가운데 하나의 작은 부처를 조각해 놓은 2명의 부처가 경건하고 자애롭게 느껴진다. 서양화가 홍성담 씨의 '물속에서 스무날' 연작 네편도 연꽃과 물의 이미지를 통해 삶과 죽음의 진지한 성찰의 경계를 보여준다. 안성금씨의 '부처의 소리'는 부처의 본질에 대한 파격적인 화면을 캔버스 위에 펼쳐 놓았다.



최태훈씨의 '숲-부처1'.

고즈넉한 산사에 흐르는 시선을...

한여름밤 산사에서 아름다운 우리 문학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잇달아 펼쳐진다. 인제 백담사(하주 오련)에서는 '만해축전', 직지사(주지 자광)에서는 '여름 우리시 대축제'가 열린다.

'2004 만해축전'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백담사만해마을에서 개최된다.

만해 스님 입적 60주년을 맞아 올리는 만해대상 시상식, 유심문학상·유심신인문학상 시상, 전국고교백일장, 시인학교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중 특별히 마련된 '만해 서거 60주년 심포지엄'은 한국시사랑회를 비롯해 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현대불교문인협회 등 한국문학계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각각 개별 행사를 주관해 만해 스님의 민족관과 문학세계를 재

백담사 '만해축전' 열어

대동제·유명시인 초청 등 행사 다양

직지사 '여름 우리시 대축제' 개최 백일장·시조암송대회 등 성화

조명한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동제 축전, '문화마을 들소리' 공연, 문예 전시 행사 등은 올해 새롭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대동제에는 백담계곡 전국하프마라톤대회와 축구경기, 씨름대회, 도청소년 댄스대회 등이 포함돼 있다.

12일 오전 10시 한국시사랑회 심포지엄으로 문을 여는 만해축전은 오후 2시 시인학교 입학식에 이어 오후 6시에는 축전 일제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특히 3박4일 일정으로 마련되는 만해시인학교는 시를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문학교실이다. 정진규 신달자 최동호 이상국 신승근 도정환 박영희 이연빈 시인과 소설가 송기원씨가 강사로 초청됐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오후 2시부터 만해사상실천양회가 주최하는 '제 6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31일 오후 1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anhae.com)를 비롯해 우편 접수와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지회(033-636-6787)로 문의 하면 된다.

직지사도 만덕전에서 8월 7·8일 양일간 '제 2회 여름 우리시 대축제(시인학교)를 연다. 특히 올리는 '시인학교'를 비롯해 '시조백일장' '시조암송 경연대회' 등 영역을 특성화 했으며, 유명 시인들이 초청돼 '우리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인학교'는 △문학특강: 정완영 시인(시와 인생), 정일근 시인(시의 입문) △현대시조창작법(김주석 시인) △동시조 창작지도(임성화·박희정 시인) △현대 명시조 이해와 감상(문무학 시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자작시 낭송과 시조 백일장, 시인과의 대화, 산사음악회 등도 함께 열린다.(054)436-6174

김주일 기자

펼치면 멋진 천개로 변신!!
접으면 영입사이프르 보관이 간편
다양한 이미지 및 로고 삽입 가능

■ 카드선캡 1,800원 (다량구매시 할인)

■ 연꽃저금통 3,000원

■ 동자저금통 5,000원

■ 코끼리저금통 5,000원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어른불교학교
어른불교학교
어른불교학교

■ 여름불교학교현수막(실사) 높이 90cm
6m 60,000원 7m 70,000원
※기타사이즈 및 이미지 변경가능

■ 종경차갈이 4,000원

■ 황금달마현존갈이 15,000원

■ 목탁현존갈이 3,000원

유기농 재배한 통불사 연향차

■ 연향차(연꽃잎차) 38,000원 → 30,000원
연일 100%, 40g

지리산 전통 수제초차

■ 불성차 (100g) 중차 35,000원
세차 50,000원
우전 100,000원

■ 다포(39x50) 기도포(39x80)
다포(백색) 900원
다포(화색) 1,300원
기도포(백색) 1,700원
기도포(화색) 1,900원

※ 100장이상 사찰명 무료인쇄

■ 20수 이종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이종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4,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20수 이종 라운드티 6,000원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초 주문 수량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마하몰 단채 행사용품 특별기획전